

s a m s u n g a p t i t u d e t e s t

삼성직무
적성검사

*

언어능력

빈출 한자어 및 한자성어

01 편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어

- 01**
- ▶ 감격(感激) : 깊이 느껴서 마음이 격해질 정도로 흥분함.
 [예] 경쟁자를 누르고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 ▶ 감동(感動) :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임.
 [예] 선물에 감동 받은 그녀는 눈물마저 글썽였다.
 - ▶ 감명(感銘) : 깊이 느껴서 마음에 새김.
 [예]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 ▶ 감탄(感歎) : 깊이 느껴서 놀라워함.
 [예]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천재성에 감탄하였다.
 - ▶ 감화(感化) : 깊이 느껴서 바람직하게 변화함.
 [예] 그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나는 다시 태어났다.
- 02**
- ▶ 강독(講讀) : 책을 읽으며 그 뜻을 설명하고 가르침.
 [예] 야학에서 명심보감을 강독해 오고 있다.
 - ▶ 강습(講習) : 특정한 과목이나 기술 따위를 설명하고 익힘.
 [예] 무료로 수영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 ▶ 강연(講演) : 청중들 앞에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 연설함.
 [예] 오늘 강연의 주제는 다소 심오했다.
 - ▶ 강의(講義) : 학설이나 이론의 뜻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침.
 [예] 그 교수의 전공강의 시간은 늘 붐볐다.
 - ▶ 강평(講評) : 평가를 하며 분석하고 가르침.
 [예] 제출한 글에 대해 일일이 강평을 한다.
- 03**
- ▶ 개관(開館) : 주로 '관(館)'자가 붙는 시설의 업무를 시작함.
 [예] 인사동에 새로운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 ▶ 개막(開幕) : 음악회 따위를 열거나 회의, 행사 따위를 시작함.
 [예] 프로 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되었다.
 - ▶ 개봉(開封) : ① 봉한 것을 떼어서 엮. ②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함.
 [예] 올 가을에 개봉될 예정인 영화다.
 - ▶ 개설(開設) : 새로 설치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함.

- ▶ 예 영작문 수업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 ▶ 개원(開院) : 주로 ‘원(院)’자가 붙는 시설의 업무를 시작함.
 - ▶ 예 그 의사는 곧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 ▶ 개장(開場) : 주로 ‘장(場)’자가 붙는 시설의 업무를 시작함.
 - ▶ 예 주가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상승했다.
- ▶ 개통(開通) : 새로 만든 도로, 항로, 전신 따위를 이용하기 시작함.
 - ▶ 예 전철이 연장 개통되면서 새로운 상권이 생겨났다.

04

- ▶ 검문(檢問) : 자세히 따져 물으며 검사함.
 - ▶ 예 검문 초소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 ▶ 검사(檢査) : 사실을 살피고 조사해서 옳고 그름 따위를 따짐.
 - ▶ 예 X-ray 검사 결과, 인대가 끊어져 있었다.
- ▶ 검산(檢算) : 셈한 것이 맞는지를 조사함.
 - ▶ 예 확실히 검산을 해서 이번 수학 시험은 꼭 잘 보도록 해라.
- ▶ 검색(檢索) : 구석구석 뒤져서 찾으며 검사함.
 - ▶ 예 인터넷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찾아보자.
- ▶ 검열(檢閱) : ① 어떤 행위나 사업을 살피고 조사함. ② 사전에 심사해서 통제함.
 - ▶ 예 일부 기업들은 사원들의 이메일도 검열한다.
- ▶ 검정(檢定) : ① 검사해서 자격을 정함. ② 적부를 심사함.
 - ▶ 예 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자가 늘고 있다.
- ▶ 검증(檢證) : 검사해서 증명함.
 - ▶ 예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
- ▶ 검출(檢出) : 화학적 분석에서 시료 속 어떤 물질의 유무를 알아냄.
 - ▶ 예 유골에서도 DNA가 검출된다고 한다.
- ▶ 검토(檢討) :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 ▶ 예 정부는 세울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05

- ▶ 귀결(歸結) : 논의나 행동이 어떠한 결론이나 결말에 다다름.
 - ▶ 예 나의 투쟁이 결국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하다.
- ▶ 귀소(歸巢) : 태어나서 자란 장소로 되돌아감.
 - ▶ 예 반달곰에게도 귀소 경향이 있다고 한다.
- ▶ 귀의(歸依) : 돌아가 의지함.
 - ▶ 예 모든 것을 버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귀의했다.

- ▶ 귀책(歸責) : 행위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에게 돌아감.
 예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
- ▶ 귀환(歸還) : 외지나 전쟁터 따위에서 돌아옴.
 예 사고 없이 무사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6

- ▶ 개념(概念) : ① 대략적인 내용이나 뜻.
 ② 어떤 사물, 현상,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예 개발과 환경 보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 ▶ 관념(觀念) :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철저한 위생 관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 ▶ 궤념(掛念) : 어떤 것이 마음에 걸려 신경이 쓰임.
 예 그는 자신의 과오를 크게 궤념하지 않았다.
- ▶ 상념(想念) :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
 예 떠나간 그녀를 떠올리며 상념에 빠져 들었다.
- ▶ 여념(餘念) :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
 예 사업 전략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 ▶ 유념(留意) :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함.
 예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세요.
- ▶ 이념(理念) : 이상적으로 여겨 추구하는 근본적인 생각.
 예 헌법은 4·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
- ▶ 집념(執念) :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을 쏟음.
 예 성공을 향한 그의 집념은 너무도 강렬했다.
- ▶ 체념(諦念) : 품었던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음.
 예 그는 완전히 체념한 듯 순순히 자백했다.
- ▶ 통념(通念) : 대부분의 사람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
 예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아야 한다.

07

- ▶ 논박(論駁) : 상대 주장의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함.
 예 타인의 주장을 논박하는 사람은 근거를 대라.
- ▶ 논술(論述) : 의견을 조리 있게 서술함.
 예 자신의 생각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십시오.
- ▶ 논의(論議) :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주장하며 토의함.
 예 몇 가지 대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 ▶ 논쟁(論爭) : 각자 자기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내세우며 다툼.
 예 네티즌들은 갑론을박하며 논쟁을 벌였다.
- ▶ 논증(論證) :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예 그 사실은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증되었다.
- ▶ 논평(論評) : 어떤 일이나 작품 따위에 대해 조리 있게 평함.
 예 정부 정책에 대해 야당은 간단하게 논평했다.

08

- ▶ 군담(軍談) :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예 삼국지는 남성적인 군담 역사 소설이다.
- ▶ 대담(對談) : 마주 대하여 말함. 또는 그 말.
 예 출연자들은 두 시간 가량 대담을 나누었다.
- ▶ 덕담(德談) : 잘되라고 들려주는 말이나 인사.
 예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여러 덕담을 해주셨다.
- ▶ 사담(私談) : 공적인 일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
 예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은 사담이 아니다.
- ▶ 여담(餘談) : 본래 말하던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예 여담으로 제 술버릇에 대해 말씀드리죠.
- ▶ 필담(筆談) : 글로 써서 서로의 의사를 통하게 함.
 예 너무 시끄러워 그들은 필담을 나누었다.

09

- ▶ 대립(對立) : ①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② 서로 맞서거나 버팀. ≒ 대치(對峙)
 예 남북 간의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했다.
- ▶ 대면(對面) :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며 서로를 대함.
 예 협상 전문가는 인질범과 직접 대면하였다.
- ▶ 대비(對比) : 서로 맞대어서 견주어 봄.
 예 도시 면적 대비 숲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이다.
- ▶ 대적(對敵) : 반대되는 세력 따위가 서로 맞서 겨룸. ≒ 대항(對抗)
 예 그들과 대적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
- ▶ 대조(對照) : ① 서로 맞대어서 어긋나는 점을 위주로 견주어 봄.
 ② 서로 달라서 비교됨.
 예 흰 양말과 까만 구두가 대조를 이뤘다.
- ▶ 대처(對處) : 어떤 일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함.
 예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10**
- ▶ 가두(街頭) : 주택이나 가게가 많이 늘어서 있는 거리.
 [예]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이 열린다.
 - ▶ 모두(冒頭) : 말이나 글의 처음 부분. ≒ 허두(虛頭)
 [예] 의장은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났다.
 - ▶ 박두(迫頭) : 정한 날짜나 시기 따위가 가까이 다다름.
 [예] 초대형 블록버스터, 갤럭시 워즈 2! 개봉 박두!
 - ▶ 연두(年頭) : 한 해의 첫머리.
 [예] 정부 각 부처의 연두 업무 보고가 시작됐다.
 - ▶ 염두(念頭) : 마음속.
 [예] 정보의 중요성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진두(陳頭) : ① 나란히 도열한 군대의 선두. ② 업무의 맨 앞.
 [예] 사장님이 직접 모든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 ▶ 필두(筆頭) : 맨 처음 사람. 또는 맨 처음 차례.
 [예]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한 일본의 문화 산업.
- 11**
- ▶ 등단(登壇) : 특정한 분야(주로 문단)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냄.
 [예] 그 남자는 10년 만에 소설가로 등단했다.
 - ▶ 등반(登攀) : 험한 바위나 높은 산을 오름.
 [예] 설악산을 등반 중이던 등산객이 조난당했다.
 - ▶ 등용(登用) : 좋은 인재를 뽑아서 채용함.
 [예] 좋은 인재를 등용해야 회사가 번창한다.
 - ▶ 등재(登載) :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떠한 글을 실음. ≒ 게재(揭載)
 [예]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 ▶ 등정(登頂) : 산 따위의 꼭대기에 오름.
 [예]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후 하산하는 길이었다.
- 12**
- ▶ 관례(慣例) : 옛날부터 쪽 해 와서 관습이 되어 버린 의식이나 규칙.
 [예]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 실례(實例) : 구체적인 실제의 예.
 [예] 선생님은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셨다.
 - ▶ 연례(年例) : 해마다 치르는 정기적인 행사나 예식.

- 예 공공요금 인상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었다.
- ▶ 용례(用例) : 구체적으로 쓰이는 예.
 - 예 좋은 사전은 단어의 용례를 많이 신는다.
- ▶ 유례(類例) : ① 비슷한 예. ②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 예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인사 조치였다.
- ▶ 통례(通例) :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의식이나 규칙.
 - 예 아직까지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게 통례다.

13

- ▶ 반격(反擊) : 적의 공격에 되받아 공격함.
 - 예 선불리 건드렸다가 도리어 반격을 당했다.
- ▶ 반박(反駁) : 남의 견해나 비판에 맞서서 자기의 주장을 펼침.
 - 예 교장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었다.
- ▶ 반발(反撥) : 상대에 대하여 반항하는 태도를 보임.
 - 예 새 정책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심하다.
- ▶ 반영(反映) : 의견이나 영향 따위를 받아들여서 나타냄.
 - 예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다.
- ▶ 반증(反證) :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증거를 들어 뒤엎음. 또는 그 증거.
 - 예 동시에 위험 역시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 반추(反芻) : ① 삼킨 것을 되씹음. ② 되풀이해서 음미함.
 - 예 예술은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수단이다.

14

- ▶ 변동(變動) : 변하여 달라짐.
 - 예 하계 연수 계획이 변동되었다.
- ▶ 변용(變容) : 모습이나 모양이 변함.
 - 예 민화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화두에 골몰했다.
- ▶ 변이(變異) : 같은 종류의 생물 개체가 전혀 다른 형질을 보임.
 - 예 염색체 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
- ▶ 변절(變節) : 절개, 지조, 신념 따위를 바꾸거나 버림.
 - 예 독립 운동가이던 그는 후일 변절해 버렸다.
- ▶ 변질(變質) : 물질, 현상, 상태 따위의 성질이 변함.
 - 예 변질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 ▶ 변천(變遷) :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서 달라짐.
 - 예 식생활의 변천사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다.

- ▶ 변혁(變革) : 근본이 바뀔 정도로 급격하게 변함.
 [예] 활판 인쇄술은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 15**
- ▶ 감별(鑑別) : 가치, 종류, 참과 거짓 따위를 잘 살펴서 구별함.
 [예] 정교한 위폐까지도 감별할 수 있는 기계다.
 - ▶ 구별(區別) :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다른 점을 갈라놓음.
 [예] 직장 생활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
 - ▶ 변별(辨別) :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따위를 가려서 앎.
 [예]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 분별(分別) : 무엇에 대해 사리에 맞게 판단함.
 [예] 사리를 따져 가며 분별 있게 대응하고 있다.
 - ▶ 선별(選別) : 뽑아서 따로 갈라놓음.
 [예]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별해 채용한다.
 - ▶ 차별(差別) : 차등하게 갈라놓음.
 [예]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16**
- ▶ 담소(談笑) :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예]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 ▶ 미소(微笑) :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예] 여주인공의 해맑은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
 - ▶ 실소(失笑) : 어처구니가 없어 무심결에 나오는 웃음.
 [예] 황당한 발언은 청중의 실소를 자아냈다.
 - ▶ 조소(嘲笑) : 깔보는 태도로 웃음.
 [예] 야유, 조소 따위의 모욕적 언동을 금합니다.
 - ▶ 폭소(爆笑) :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오는 웃음.
 [예] 익살스런 대답에 방청석에선 폭소가 터졌다.
- 17**
- ▶ 교대(交代) :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함. 또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
 [예] 계속되는 교대 근무로 피곤하다.
 - ▶ 교류(交流) : 서로 오가면서 문물이나 사상을 교환함.
 [예] 양국 간 미술 교류가 활발하다.
 - ▶ 교차(交叉) : 종과 횡으로 서로 엇갈림.

예 두 줄무늬가 교차되어 있으니 어지럽다.

▶ 교체(交替) : 기존의 물건, 사람을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꿈.

예 낡은 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 교환(交換) : 물건 따위를 서로 맞바꿈.

예 물물 교환은 가장 원시적인 거래 형태이다.

18

▶ 도래(到來) : 다가옴. 또는 닥쳐옴.

예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 유래(由來) : 사물이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되어 옴.

예 이 음식의 유래는 너무 오래되어 찾기 힘들다.

▶ 재래(再來) : 다시 옴.

예 그의 개인기는 '펠레의 재래'라고 불릴 정도였다.

▶ 전래(傳來) : 예부터 전하여 옴. 또는 다른 곳에서 전하여 옴.

예 집안 대대로 전래되어 온 방법이다.

▶ 초래(招來) : 어떤 결과를 야기함.

예 그의 경솔한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

▶ 부각(浮刻) : 존재, 장점, 특성 따위가 현저히 드러남.

예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주로 부각되었다.

▶ 부상(浮上) : ① 물 위로 떠오름. ② 어떤 존재가 드러남.

예 박 이사가 차기 사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부양(浮揚) :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름. 또는 떠올림.

예 침체된 경제 지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다.

▶ 부유(浮遊) : ① 공중이나 물 위를 떠다님. ② 정처 없이 떠돌음.

예 바다 위를 부유하는 해파리를 조심해야 한다.

▶ 부침(浮沈) : ① 물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함.

② 사람, 세력 따위가 성하고 쇠함.

예 돌이켜 보면, 부침이 많았던 인생이었다.

- 20**
- ▶ 공상(空想) : 실현 불가능한 헛된 생각을 함.
 [예] 난 침대에 누워서 공상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
 - ▶ 묵상(默想) : 말없이 조용히 생각함.
 [예] 그는 한구석에서 오랜 묵상에 잠겼다.
 - ▶ 상상(想像) :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생각함.
 [예] 그녀와 나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였다.
 - ▶ 연상(聯想) : 어떤 사물을 통해 관련 있는 다른 사물을 생각함.
 [예] 그를 보면 멧돼지가 연상된다.
 - ▶ 회상(回想) : 지나간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함.
 [예] 나는 눈을 감고 20년 전의 일을 회상하였다.
- 21**
- ▶ 경원시(敬遠視) :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함.
 [예] 사실 그는 이 교수를 경원시하고 있었다.
 - ▶ 도외시(度外視) : 마음속에 두지 않고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예] 원로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다.
 - ▶ 동일시(同一視) : 똑같은 것으로 봄.
 [예] 이번 일을 지난번 경우와 동일시하면 오산입니다.
 - ▶ 문제시(問題視) : 문젯거리로 여겨서 주의 깊게 관찰함.
 [예] 최근, 부동산 투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 ▶ 백안시(白眼視) : 흰 눈으로 흘겨보며 업신여기거나 푸대접함.
 [예] 평소 그를 백안시하던 마을 사람들은 놀고 말았다.
- 22**
- ▶ 과장(誇張) : 실제보다 지나치게 떠벌려 나타냄.
 [예] 그의 말은 항상 과장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다.
 - ▶ 신장(伸張) : 세력, 범위 따위를 넓히고 수준 따위를 높임.
 [예] 국력이 30년 전보다 크게 신장되었다.
 - ▶ 확산(擴散) :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퍼져 나감.
 [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 확장(擴張) : 힘이나 범위, 공간 따위를 넓힘.
 [예]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 ▶ 확충(擴充) : 넓혀서 속 내용을 충실하게 채움.
 [예]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23**
- ▶ 굴종(屈從) : 자기의 소신을 굽혀 비굴하게 남을 따름.
 - 예 불의에 굴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 ▶ 맹종(盲從) :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름.
 - 예 상사에게 맹종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 ▶ 묵종(默從) : 말없이 따름.
 - 예 잔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그의 말에 묵종하였다.
 - ▶ 순종(順從) : 순순히 따름.
 - 예 동생은 무슨 일인지 나의 지시에 순종하였다.
 - ▶ 추종(追從) : 남의 뒤를 좇아서 따름.
 - 예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벌써 3만 명이 넘었다.
- 24**
- ▶ 감찰(監察) : 공무상의 비리를 조사하고 감독함.
 - 예 이번 감찰에서 비리가 적발되었다.
 - ▶ 고찰(考察) : 뚜렷이 밝혀내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살핌.
 - 예 아무리 고찰해 봐도,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 ▶ 성찰(省察) : 자기나 자기 주변에 관해 깊이 살펴봄.
 - 예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성공은 불가능하다.
 - ▶ 정찰(偵察) : 적의 실태를 몰래 살펴봄.
 - 예 너는 먼저 적진을 정찰한 다음 나에게 보고해라.
 - ▶ 통찰(洞察) : 사물, 현상을 예리하게 꿰뚫어 봄.
 - 예 그의 통찰에 우리는 혀를 내둘렀다.
- 25**
- ▶ 이탈(離脫) :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감.
 - 예 그는 대열을 이탈하여 산속으로 숨었다.
 - ▶ 일탈(逸脫) : 주로 긍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빗나감.
 - 예 한순간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 빗나간 행위였다.
 - ▶ 초탈(超脫) : 어떤 한계 따위를 뛰어넘어서 벗어나.
 - 예 그는 이미 배고픔 따위는 초탈한 모습이였다.
 - ▶ 탈출(脫出) : 벗어나서 빠져나감.
 - 예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8년간 바닥을 뚫다.
 - ▶ 탈피(脫皮) : 낡은 생각, 관습 따위에서 벗어나 새로워짐.
 - 예 이제 우리 가문도 구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 26** ▶ **고양(高揚)** : 기분, 사기 따위의 추상적인 것을 드높임.
 [예] 사기를 고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상승(上昇)** : 위로 올라감.
 [예] 그는 주가 상승으로 쓸쓸한 재미를 보았다.
- ▶ **선양(宣揚)** : 명성 따위를 널리 떨쳐서 드높임.
 [예] 국제 대회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했다.
- ▶ **승화(昇華)** : 질적인 변화를 통해 높은 단계로 올라감.
 [예] 그의 슬픔은 애절한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 ▶ **제고(提高)**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도나 수준을 높임.
 [예]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의를 내일 열겠습니다.
-
- 27** ▶ **비속(卑俗)** : 품격이 낮고 속됨. 또는 그러한 풍속.
 [예] 그렇게 비속한 말은 사용하지 마라.
- ▶ **양속(良俗)** : 아름다운 풍속.
 [예] 불우 이웃 돕기는 우리의 미풍이요, 양속이다.
- ▶ **탈속(脫俗)** : 세속의 모습이나 번뇌를 벗어 버림.
 [예] 유려한 곡선으로 탈속의 경지를 보여 준다.
- ▶ **토속(土俗)** : 한 지방의 고유한 습관이나 풍속.
 [예] 빙떡, 오매기술 따위는 제주의 토속 음식이다.
- ▶ **통속(通俗)** : ① 누구에게나 통하는 풍속.
 ②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통하는 일.
 [예] 무협 소설은 보통 통속 문학으로 분류된다.
- ▶ **풍속(風俗)** : 예부터 내려오는 삶에 관한 사회 전반의 습관.
 [예] 품앗이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
- 28** ▶ **구술(口述)** : 말로 이야기를 펼침.
 [예] 거동이 불편한 그는 구술을 통해 책을 썼다.
- ▶ **기술(記述)** : 글로 적어서 이야기를 펼침.
 [예] 역사란 강자의 뜻대로 기술되는 것이다.
- ▶ **상술(詳述)** : 자세하게 기술함.
 [예] 설명이 빈약하니 좀 상술해서 쓰도록 해라.
- ▶ **약술(略述)** : 간략하게 기술함.

- 예) 장황하게 적지 말고 약술해서 작성해라.
- ▶ 진술(陳述) : 말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펼침.
- 예)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9

- ▶ 연계(連繫) : 어떤 일이나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 예)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해 관광 상품화 하자.
- ▶ 연대(連帶) : 어떤 사람이 함께 일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예)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 상황에 대처하자.
- ▶ 연동(連動) : 한 쪽이 움직임에 따라 다른 것도 따라 움직임.
- 예) 가스 요금은 보통 유가와 환율에 연동된다.
- ▶ 연루(連累) : 범죄 따위의 안 좋은 사건에 관계됨.
- 예) 경찰은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을 체포했다.
- ▶ 연쇄(連鎖) : 쇠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일이 서로 이어짐.
- 예) 극심한 불황 탓에 국내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있다.
- ▶ 연좌(連坐) : ① 잇대어 앉음. ② 타인의 죄에 휘말려 벌 받음.
- 예) 시위대들이 길거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30

- ▶ 감안(勘案) : 빠뜨리지 않고 잘 헤아려서 생각함.
- 예) 네 수입을 감안할 때 골프 여행은 과소비다.
- ▶ 고안(考案) :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궁리해서 생각해 냄.
- 예) 인류가 고안한 자원 배분 제도 중의 하나다.
- ▶ 기안(起案) : 정식 안을 만들기 위해 초안을 세워 봄.
- 예) 기안 작성에서 최종 결재까지 하루면 된다.
- ▶ 단안(斷案) :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결정함. 또는 그 결정된 생각.
- 예)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단안을 내리지 못한다.
- ▶ 대안(代案) : 어떤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안.
- 예) 비난을 하면서도 적절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 ▶ 도안(圖案) :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그림으로 나타냄.
- 예) 요즘은 태극 문양으로 도안한 옷이 많아졌다.
- ▶ 묘안(妙案) :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
-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 ▶ 번안(飜案) : 외국의 예술 작품을 국내 현실에 맞춰 고침.
- 예) 외국 소설의 번안 과정에서 원작을 꼼꼼하게 살려 냈다.

- ▶ 복안(腹案) :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
 - 예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 ▶ 현안(懸案) :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결론이 나 있지 않은 문제나 안.
 - 예 굵직한 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 31**
- ▶ 남용(濫用) : 정해진 양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마구 씀.
 - 예 약물 남용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 도용(盜用) :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허락 없이 씀.
 - 예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 ▶ 범용(汎用) : 한 가지 용도가 아니라 여러 용도로 널리 씀.
 - 예 기중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범용 부품이다.
 - ▶ 병용(竝用) : 둘 이상을 나란히 같이 씀.
 - 예 인터넷 조사와 면접 조사를 병용할 계획이다.
 - ▶ 선용(善用) : 올바르게 잘 씀.
 - 예 가장 선호하는 여가 선용 방법은 스포츠이다.
 - ▶ 유용(流用) :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돌려 씀.
 - 예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 ▶ 인용(引用) : 다른 것의 사례나 문장을 끌어다 씀.
 - 예 유명한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 ▶ 차용(借用) : 금품 따위를 빌려서 씀.
 - 예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 증서를 받아 뒤편에 써야 한다.
 - ▶ 혼용(混用) : 이것저것 섞어서 씀.
 - 예 양복과 한복을 합친 혼용 스타일이 인기다.
- 32**
- ▶ 대응(對應) : ① 합당한 조치를 취함. ② 대상이 짝을 이룸.
 - 예 주권을 뺏으려는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자.
 - ▶ 부응(副應) : 어떤 것을 좇아서 그에 응함.
 - 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 불응(不應) : 응하지 않음.
 - 예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0점 처리된다.
 - ▶ 상응(相應) : ① 서로 응함. ② 서로에게 맞아서 조화를 이룸.
 - 예 노력과 업적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하라.
 - ▶ 순응(順應) : ① 순순히 응함. ② 환경에 맞추어 적응함.

- ▶ **예** 천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 ▶ **향응(饗應)** : 극진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함. 또는 그 대접.
- ▶ **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를 색출하자.
- ▶ **호응(呼應)** : 어떤 호소나 요구에 응하거나 대답함.
- ▶ **예**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33

- ▶ **관중(觀衆)** :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 ▶ **예** 프로 농구가 1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혔다.
- ▶ **군중(群衆)** : 한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 ▶ **예** 집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참여했다.
- ▶ **대중(大衆)** :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 ▶ **예**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 **민중(民衆)** :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
- ▶ **예** 권력이 남용될 경우 민중은 고통에 빠진다.
- ▶ **청중(聽衆)** :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 ▶ **예** 즉흥 연주로 청중과 호흡할 예정이다.

34

- ▶ **공인(公認)** : 일반 공중, 국가, 공공 단체 따위가 인정함.
- ▶ **예** 태권도는 IOC 공식 경기 종목으로 공인 받았다.
- ▶ **묵인(默認)** :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눈감고 넘어감.
- ▶ **예**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승인(承認)** : 정당성이나 사실 여부를 인정해 줌.
- ▶ **예** 사장님의 승인을 거쳐 내주부터 시행된다.
- ▶ **시인(是認)** :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 ▶ **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 ▶ **오인(誤認)** : 그릇되게 보거나 그릇되게 생각함.
- ▶ **예** 오인 사격인지 계획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 **추인(追認)** :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승인함.
- ▶ **예** 이사회는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35

- ▶ **개입(介入)** : 어떤 일에 끼어들.
- ▶ **예** 공금 횡령에 깊숙이 개입한 직원이다.

- ▶ 난입(亂入) : 함부로 어지럽게 들어감.
 [예] 고향이 난입해 충기를 무차별 발사했다.
- ▶ 도입(導入) : 이끌어 들임.
 [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 ▶ 돌입(突入) : 갑자기 거세게 뛰어듦.
 [예]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 ▶ 몰입(沒入) : 어떤 일에 정신없이 빠져 듦.
 [예] 배우는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 ▶ 반입(搬入) : 물건 따위를 옮겨서 들여옴.
 [예] 일부 회교 국가에서는 주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 ▶ 영입(迎入) : 새로운 인력 따위를 맞이들임.
 [예] 우리 회사는 금융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 ▶ 유입(流入) : 흘러서 들어옴.
 [예] 그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 ▶ 잠입(潛入) : 숨어서 들어옴.
 [예] 형사가 고교생으로 위장 잠입하는 내용이다.
- ▶ 주입(注入) : 흘러서 집어넣음.
 [예]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좋지 않다.
- ▶ 취입(吹入) : 녹음테이프 따위에 목소리나 소리를 담음.
 [예] 지난 10여 년간 신곡을 취입한 적이 없다.
- ▶ 흡입(吸入) : 빨아들임.
 [예] 호흡을 통해 하루 1만 리터의 공기를 흡입한다.

36

- ▶ 군집(群集) : 사람이나 사물이 한곳에 무리를 지어 모임.
 [예] 웅덩이 주변에 모기떼가 군집해 있다.
- ▶ 모집(募集) : 조건에 맞는 사람이나 사물을 널리 모음.
 [예] 이번 공개강좌의 모집 인원은 50명입니다.
- ▶ 밀집(密集) : 조금의 틈도 없을 정도로 뻘뻘하게 모임.
 [예] 수도권에는 수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 ▶ 소집(召集) : 일정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음.
 [예] 영국은 유엔 안보리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 ▶ 수집(蒐集) :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서 모음.
 [예]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 ▶ **운집(雲集)** : 구름이 모이듯 사람이 많이 모임.
 [예] 창문 밖에까지 수백여 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 ▶ **응집(凝集)** : ① 퍼졌던 것이 한데로 엉김. ② 한군데로 모임.
 [예] 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고가의 휴대폰이다.
- ▶ **징집(徵集)** : 사람이나 사물을 국가 따위가 강제로 모음.
 [예] 태평양 전쟁 때 징집됐다가 겨우 살아왔다.
- ▶ **채집(採集)** : 캐거나 찾아서 모음.
 [예] 방학 숙제 중에는 꼭 곤충 채집이 있었다.
- ▶ **수집(收集)** : 널려 있는 것을 거두어 모음.
 [예] 그는 폐품 수집으로 연명하고 있다.

37

- ▶ **감찰(監察)** : 공무상의 비리를 조사하고 감독함.
 [예] 감사 부서는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 ▶ **고찰(考察)** : 뚜렷이 밝혀내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살핌.
 [예] 이라크 전쟁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라.
- ▶ **성찰(省察)** : 자기가 한 일을 깊이 살펴봄.
 [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 ▶ **순찰(巡察)** :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핌.
 [예] 순찰을 돌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 ▶ **시찰(視察)** : 직접 돌아다니며 현지의 실제 사정을 살펴봄.
 [예] 시장은 오후에 재래시장 몇 군데를 시찰했다.
- ▶ **정찰(偵察)** : 적의 실태를 몰래 살펴봄.
 [예] 적의 기지에 잠입해 정찰 활동을 벌인다.
- ▶ **통찰(洞察)** : 관련된 사정을 훤히 꿰뚫어 봄.
 [예] 국제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주는 책이다.

38

- ▶ **침몰(沈沒)** : 물에 빠져서 바닥으로 가라앉음.
 [예] 유조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침울(沈鬱)** : 기분, 분위기 따위가 답답하고 우울함.
 [예]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 ▶ **침잠(沈潛)** : 가라앉아 깊이 잠김.
 [예]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 속에 침잠해 있었다.
- ▶ **침전(沈澱)** : 액체 속 미세한 고체가 바닥에 가라앉음.

- ▶ **예** 바닥을 휘젓자 침전된 석회 가루가 일어났다.
 - ▶ **침착(沈着)** :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함.
 - ▶ **예** 많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다.
 - ▶ **침체(沈滯)** :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름.
 - ▶ **예**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사는 게 힘들다.
 - ▶ **침하(沈下)** : 무너져 내려앉음.
 - ▶ **예** 지반 침하와 균열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 39**
- ▶ **결탁(結託)** : 마음이 맞아 한통속이 됨.
 - ▶ **예** 정치권과 기업의 결탁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 ▶ **공탁(供託)** : 금품 따위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김.
 - ▶ **예**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 ▶ **기탁(寄託)** : 금품을 남에게 맡겨 그 처리를 부탁함.
 - ▶ **예**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복지 재단에 기탁했다.
 - ▶ **위탁(委託)** :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며 남에게 맡김.
 - ▶ **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다.
 - ▶ **의탁(依託)** : 남에게 의존하고 맡김.
 - ▶ **예** 한나라 유방을 찾아가 몸을 의탁했다.
- 40**
- ▶ **경합(競合)** :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 맞서서 겨룸.
 - ▶ **예**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 **담합(談合)** : 몰래 의논해서 같이 행동하기로 마음을 합함.
 - ▶ **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다.
 - ▶ **부합(符合)** : 조금의 틀림도 없이 딱 들어맞음.
 - ▶ **예** 그 음식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부합한다.
 - ▶ **수합(收合)** : 거두고 모아서 하나로 합함.
 - ▶ **예**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서 시의회에 전달했다.
 - ▶ **야합(野合)** : 떳떳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여럿이 합함.
 - ▶ **예** 독재 권력과 야합해 큰돈을 벌어 온 기업이다.
 - ▶ **영합(迎合)** :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세상 풍조에 따름.
 - ▶ **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 ▶ **융합(融合)** : 녹여서 합함.
 - ▶ **예**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융합되었다.

- ▶ 혼합(混合) : 뒤섞여서 한데로 합함.
 [예] 견고성을 더해 주는 소재를 혼합했다.
- ▶ 화합(和合) : 화목하게 합함.
 [예]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41

- ▶ 혼돈(混沌) : 뒤섞여서 사물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음.
 [예] 총리 피살로 정국은 다시 혼돈 속에 빠졌다.
- ▶ 혼동(混同) : 헷갈려하거나 잘못 판단함.
 [예] 목적과 결과가 혼동되면 갈등이 빚어진다.
- ▶ 혼선(混線) : 업무, 전화, 통신 따위가 뒤섞여 혼란을 빚음.
 [예]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 ▶ 혼용(混用) : 섞어서 씀.
 [예] 제시문의 일부가 국한문 혼용으로 출제됐다.
- ▶ 혼잡(混雜) : 뒤섞여서 붐빔.
 [예] 폭설이 내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 ▶ 혼탁(混濁) : ① 뒤섞여서 흐림. ② 정치나 사회 현상 따위가 어지럽고 더러움.
 [예] 불법 혼탁 선거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성어

(1) 충(忠) · 우국(憂國)

- 견마지로(犬馬之勞) 정성껏 충성을 다함. 자기의 노력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침.
 견위치명(見危致命) 나라가 위급할 때 제 몸을 나라에 바침.
 위국충절(爲國忠節)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절개.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함.
 백의종군(白衣從軍) 벼슬이 없이 군대를 따라 전장으로 감.
 멸사봉공(滅私奉公)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룸.
 절효정문(節孝旌門)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깃발이 있는 문.
 망국지탄(亡國之歎) 망국에 대한 한탄. 망국지한.
 맥수지탄(麥秀之嘆) 나라를 잃음을 탄식함을 일컬음.

(2) 효(孝)

- 망운지정(望雲之情)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혼정신성(昏定晨省) 자식이 부모님께 아침저녁으로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는 것.
 반포지효(反哺之孝) 자식이 커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
 풍수지탄(風樹之歎)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3) 선(善) · 악(惡)

- 다정불심(多情佛心) 다정다감하고 착한 마음.
 권선징악(勸善懲惡)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선남선녀(善男善女)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 착하고 어진 사람들. 보통사람들의 의미도 됨.
 간악무도(奸惡無道) 간악하고 무지막지함.
 흉악무도(凶惡無道) 성질이 사납고 악하며 도의심이 없음.
 포학무도(暴虐無道) 성질이 포학하고 도리에 어긋남.
 극악무도(極惡無道) 몹시 악하고 도리에 어긋남. 극악하고 무도함.
 악사천리(惡事千里) 나쁜 일은 곧 그 소문이 널리 알려진다는 말.

(4) 인(仁) · 덕(德)

- 인자무적(仁者無敵)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살신성인(殺身成仁) 목숨을 버려 어진 일을 이룸.
- 인자요산(仁者樂山) 어진 사람은 산을 즐겨함.
- 겸양지덕(謙讓之德) 겸손하고 사양하는 미덕.
- 음덕양보(陰德陽報)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저절로 받음.
- 기여보비(寄與補裨) 이바지하여 돕고 모자람을 보탬.
-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 십시일반(十匙一飯)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쉬움.
-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음.
- 인면수심(人面獸心) 인정이 없는 자를 말함
- 아전인수(我田引水)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만 함을 이르는 말.

(5) 애정(愛情) · 증오(憎惡)

- 운우지정(雲雨之情) 남녀 간의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사랑.
- 상사불망(相思不忘)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
- 애지중지(愛之重之)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
- 동병상련(同病相憐) 처지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동정함.
- 질축배척(嫉逐排斥)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물리침.

(6) 기쁨[悅] · 좋음[好] · 슬픔[悲] · 비분(悲憤)

- 기고만장(氣高萬丈)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기꺼워함.
- 포복절도(抱腹絕倒) 배를 그리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 포복.
- 가가대소(呵呵大笑) 너무 우스워서 깔깔 크게 웃음.
- 간간대소(衍衍大笑)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크게 소리 내어 웃음.
- 여민동락(與民同樂)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김. 여민해락.
- 박장대소(拍掌大笑)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놓는다는 뜻으로 좋은 일이 겹침.
-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수록 더욱 좋음.
- 애이불비(哀而不悲) 속으로는 슬퍼하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 애이불상(哀而不傷) 슬퍼하되 도를 넘지 아니함.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
 천인공노(天人共怒)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한다는 뜻. 도저히 용서 못함을 비유.
 함분축원(含憤蓄怨)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음.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한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임.

(7) 예(禮) · 무례(無禮)

극기복례(克己復禮)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의범절을 따름.
 거안제미(擧案齊眉)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
 돈수재배(頓首再拜) 경의를 표함이라는 뜻으로, 편지 머리나 끝에 쓰는 말.
 사은숙배(謝恩肅拜) 임금의 은혜에 사례하여 공손하게 절함.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자괴지심(自愧之心)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파렴치한(破廉恥漢) 엄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뜻.
 천방지축(天方地軸) 함부로 날뛰는 모양.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자하고 교만하여 사람을 모두 얹잡아 보는 것.
 유아독존(唯我獨尊)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
 불한당(不汗黨) 떼를 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이면부지(裏面不知) 경위 없이 굽. 또는, 그러한 사람.
 자화자찬(自畫自讚) 제 일을 제 스스로 자랑함.
 좌충우돌(左衝右突)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무전취식(無錢取食) 값은 치를 돈도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음.

(8) 기세(氣勢) · 절개(節概) · 비굴(卑屈)

배수지진(背水之陣) 필승을 기하여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나 그 기세를 이르는 말.
 호연지기(浩然之氣) 온 세상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
 는 데서 나오는 도덕적인 용기. 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냄. 죽고 삶을 결정지음.
 의기양양(意氣揚揚) 득의하여 기세가 오름. 득의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

- 요원지화(燎原之火) 견잡을 수 없이 퍼지는 세력이나 기세.
- 일사천리(一瀉千里) 어떤 일이 거침없이 또는 기세 좋게 빨리 되어가는 모양.
- 의기충천(意氣衝天) 득의한 마음 또는, 기개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음.
- 사기충천(士氣衝天)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음.
-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를 쪼갤 때와 같은 형세라는 뜻으로, 세력이 강하여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
- 칠전팔기(七顛八起)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굽히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
- 권토중래(捲土重來) 한 번 패한 자가 힘을 돌이켜 흠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고사에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힘을 모아 다시 시작한다는 뜻.
-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어도 굽히지 않음.
- 살기충천(殺氣衝天) 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함.
- 보무당당(步武堂堂) 걸음걸이가 활발하고 당당함.
- 득의양양(得意揚揚)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
-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에 두 동강을 낸다는 뜻으로, 일이나 행동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을 이르는 말.
- 망명도생(亡命圖生) 망명하여 삶을 꺾함.
- 전전긍긍(戰戰兢兢) 매우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조심함.

(9) 행(幸) · 불행(不幸)

- 천재일우(千載一遇)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천재 일시.
- 천우신조(天佑神助) 하늘과 신령이 도움.
- 원화소복(遠禍召福) 재앙을 물리쳐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
- 구사일생(九死一生)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
- 일확천금(一攫千金) 힘 안들이고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전도유망(前途有望) 앞으로 잘 될 희망이 있음. 장래가 유망함.
-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겹침의 비유.
- 칠전팔도(七顛八倒)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거꾸러진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하거나 몹시 고생함을 이르는 말.
- 계란유골(鷄卵有骨) 달걀에 뼈가 있다는 뜻.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 됨을 이르는 말.

(10) 우매(愚昧) · 무모(無謀) · 현명(賢明) · 기지(機智)

- 양호유환(養虎遺患) 호랑이를 길러 근심을 남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뜻.
- 각주구검(刻舟求劍) 움직이는 배 위에서 칼을 빠뜨리고는 그 뱃전에 금을 그어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에서,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음.
- 동문서답(東問西答)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판판의 소리로 대답함.
- 수주대토(守株待兔) 나무그루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로 어리석음의 비유.
- 대우탄금(對牛彈琴) 소를 앞에 두고 가야금을 연주한다는 뜻. 어리석은 자에게 도리를 설명해도 조금도 깨닫지 못함의 비유.
-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옹혀 들어감.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워함.
- 등하불명(燈下不明)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을 모름.
- 구상유취(口尚乳臭)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 말이나 하는 짓이 아직 유치함.
- 근시안(近視眼) 근시인 눈. 눈앞의 일에만 구애되어 먼 앞날의 일을 짐작하는 지혜가 없음을 비유하는 말.
-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침.
- 교주고슬(膠柱鼓瑟) 비파나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풀로 고정시키고 그것을 타면 한 가지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변통성이 없이 소견이 꼭 막힌 사람을 일컫음.
-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의견이나 비평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을 말함.
- 이란투석(以卵投石) 달걀로 바위에 부딪친다는 뜻으로, 극히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목불식정(目不識丁) 낫 놓고 기역자도 모름. 아주 무식함.
- 당랑거철(螳螂拒轍)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
-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
- 일엽지추(一葉知秋)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하찮은 조건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말.
- 우문현답(愚問賢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 문일지십(聞一知十)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앎.
- 선견지명(先見之明) 닥쳐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
- 박학다식(博學多識)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음.
- 다문박식(多聞博識) 견문이 많고 학식이 넓음.

산전수전(山戰水戰)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다 겪음.
 쾌도난마(快刀亂麻) 어지럽게 꼬인 실을 시원스레 자른다는 뜻으로, 어지럽게 뒤얽힌 사
 물을 명쾌하게 처리함의 비유.

(11) 경솔(輕率) · 신중(慎重)

경박재자(輕薄才子) 재주는 있으나 경박한 사람.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고 망년된 행동.
 용의주도(用意周到) 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쳐 빈틈이 없음.
 심사숙고(深思熟考) 깊이 생각하고 곧 신중을 기하여 꼼꼼이 생각함.
 주도면밀(周到綿密) 주의가 두루 미치어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이 될 것이 없음.
 은인자중(隱忍自重) 은인하며 몸가짐을 신중히 함. 괴로움을 참고 몸가짐을 조심함.
 철두철미(徹頭徹尾) 처음부터 끝까지 투철함.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12) 의심(疑心) · 명백(明白)

청천백일(靑天白日) 하늘이 맑게 갠 밝은 날이란 뜻으로, 명백하여 숨김이 없음.
 일목요연(一目瞭然) 한 번 보아 환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함.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이 환함.

(13) 어려움[難] · 쉬움[易]

식소사번(食少事煩) 먹을 것은 적고 할 일은 많음.
 전도요원(前道遼遠) 앞으로 갈 길이 아득히 멀. 목적인 바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멀.
 백년하청(百年河淸) 중국의 황하가 늘 흐리어 맑을 때가 없다는 뜻. 아무리 오래 되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지부진(遲遲不進) 매우 더디어 일이 잘 진척되지 아니함.
 다사다난(多事多難) 여러 가지로 일이나 어려움이 많음.
 천년일청(千年一淸) 황하같은 탁류가 맑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바라는 것.
 우여곡절(迂餘曲折) 뒤얽히어 복잡하여진 사정.
 편모시하(偏母侍下)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처지.
 조실부모(早失父母) 어려서 부모를 잃음.
 여반장(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절지지이(折枝之易) 나무를 꺾는 것과 같이 쉬운 일. 대단히 용이한 일을 말한다.

(14) 실패(失敗) · 성공(成功)

- 일패도지(一敗塗地)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
- 패가망신(敗家亡身)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금의환향(錦衣還鄉)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옴.
- 탄탄대로(坦坦大路) 평평하고 넓은 큰 길. 장래가 어려움이 없이 순탄함을 이르는 말.
- 입신양명(立身揚名) 입신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림.
- 청운지지(靑雲之志) 출세하고자 하는 뜻.

(15) 허망(虛妄) · 허위(虛僞) · 진실(眞實)

-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행세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비유.
- 백일몽(白日夢) 대낮에 꿈을 꾸다는 뜻.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공상.
- 일취지몽(一吹之夢) 덧없는 부귀영화,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하는 말.
- 남가일몽(南柯一夢)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 일장춘몽(一場春夢) 한바탕 허무한 봄꿈이라는 뜻.
- 한단지몽(邯鄲之夢) 사람의 일생에 부귀란 헛되고 덧없다는 뜻.
- 과대망상(誇大妄想) 턱없이 과장하여 엉뚱하게 생각함.
- 노생지몽(盧生之夢) 한 때의 헛된 부귀영화.
- 허심탄회(虛心坦懷) 마음속에 아무런 사념 없이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함.
- 명실상부(名實相符) 이름과 실상이 부합함.
- 천진난만(天真爛漫) 조금도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천성 그대로의 행동.
- 이실직고(以實直告) 참으로써 바로 고함.
- 무실역행(務實力行)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함.

(16) 칭송(稱頌) · 비난(非難)

- 회자인구(膾炙人口)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입에 오르내리고 찬양을 받음.
- 천의무봉(天衣無縫)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문장이 훌륭하여 손 댈 곳이 없을 만큼 잘 되었음을 말함.
- 박옥혼금(璞玉渾金) 박옥은 갈고 닦지 않은 옥이고 혼금은 아직 제련되지 않은 금을 뜻하는 것으로,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을 칭찬하는 말.
- 육두문자(肉頭文字) 개, 소 등 동물의 명칭을 앞에 붙여 쓰는 품격이 낮은 말.
- 황구유취(黃口乳臭) 부리가 누른 새 새끼의 입에서 젖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남을 어리고 하잘것없다고 욕으로 이르는 말.

(17) 강박(強迫) · 유화(宥和)

분서갱유(焚書坑儒) 학문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나라 시황제가 정부를 비방하는 언론을 봉쇄하기 위하여 서적을 불사르고 선비를 생매장한 일을 일컫는 말.

약육강식(弱肉強食)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힘.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른 것을 묻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마구 함.

건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강권주의(強權主義) 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남의 뜻을 무시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주의.

유유낙낙(唯唯諾諾)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응낙함.

(18) 싸움 · 전쟁(戰爭) · 평화(平和)

허허실실(虛虛實實) 허실의 계책을 써서 싸움. 서로 계략이나 기량을 다하여 적의 실을 피하고 허를 틈타 싸움.

용호상박(龍虎相搏)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 두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수효로는 많은 수효에 맞서지 못함.

어부지리(漁父之利) 양자가 다투는 바람에 엉뚱한 제삼자가 이익을 보게 됨을 이르는 말.

건곤일척(乾坤一擲) 하늘과 땅을 건 한 판의 싸움이란 뜻으로, 흥망을 걸고 온 힘을 다 기울이어 마지막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

연전연승(連戰連勝)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

승승장구(乘勝長驅) 싸움에 이긴 여세를 몰아 계속 몰아침.

양동작전(陽動作戰) 본디의 목적과는 다른 움직임을 일부러 드러냄으로써 적의 주의(注意)를 그쪽으로 끌리게 하여 정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작전.

골육상잔(骨肉相殘) 부자, 형제, 숙질 등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싸움. 같은 민족끼리 해치며 싸우는 일.

군웅할거(群雄割據) 많은 영웅들이 각지에 자리잡고 서로 세력을 다툼.

자중지란(自中之亂)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고군분투(孤軍奮鬪) 도움이 없고 수가 적은 군사가 대적과 용감하게 잘 싸움.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벽찬 일을 잘 해냄.

동정서벌(東征西伐) 이리저리로 여러 나라를 정벌함.

태평성대(太平聖代)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강구연월(康衢煙月) 변화한 거리와 밤을 짓는 연기에 그을린 달이란 뜻으로, 태평한 시대의 변화한 거리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이르는 말. 태평스러운 시대.

비옥가봉(比屋可封) 중국 요순시절에 사람이 다 착하여 집집마다 표창할 만하였다는 뜻.
 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음.
 고복격양(鼓腹擊壤) 중국의 요임금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덕
 을 찬양하고 태평을 즐겼다는 고사에서, 태평성세를 즐김.

(19) 비교(比較) · 대조(對照)

백중지세(伯仲之勢)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난형난제(難兄難題) 누구를 형이라 해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렵다
 는 뜻으로, 두 사물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움의 비유.
 춘란추국(春蘭秋菊)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각각 그 특색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호각지세(互角之勢) 역량이 서로 비슷비슷한 위세.
 천태만상(千態萬象) 천차만별의 상태.
 유만부동(類萬不同) 비슷한 것이 많으나 서로 같지는 아니함. 분수에 맞지 아니함. 정도에
 넘침.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적 지위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음.
 양망불급(仰望不及) 우러러 바라보아도 미치지 못함.
 족탈불급(足脫不及) 맨발로 뛰어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능력·역량·재질 따위의 차
 이가 뚜렷함을 이르는 말.
 천양현격(天壤懸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음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함.

(20) 기예(技藝) · 무용기예(無用技藝)

일필휘지(一筆揮之) 글씨를 단순하게 줄기차게 써 내림.
 용사비등(龍蛇飛騰) 용이 움직이는 것같이 아주 활기 있는 필력을 가리키는 말.
 화사첨족(畫蛇添足) 뱀을 다 그리고 다리를 덧붙인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 하
 다가 도리어 실패함의 비유.

(21) 화합(和合) · 불화(不和)

해로동혈(偕老同穴)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함께 늙고 함께 묻힘.
 수미상응(首尾相應) 서로 응하여 도와 줌. 양끝이 서로 응함.
 금슬상화(琴瑟相和) 거문고와 가야금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단란한 부부 사이를 비유하는 말.
 동주상구(同舟相救) 같은 배를 타면 서로 구해준다는 뜻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

은 서로 아는 사이거나 모르는 사이거나 간에 자연스럽게 서로 돕게 된다는 비유.

적우침주(積羽枕舟) 가벼운 새털도 많이 쌓으면, 무거워져서 배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말.

공고동락(同苦同樂)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함.

공도동망(共倒同亡) 함께 쓰러지고 같이 망함. 운명을 같이 함.

의기투합(意氣投合) 마음이 서로 맞음.

여출일구(如出一口) 여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나 의견이 다 같은 경우를 말함.

화기애애(和氣霏霏) 온화한 기색이 차서 넘쳐흐르는 모양.

백년해로(百年偕老) 부부가 되어 화락하게 함께 늙음.

금슬지락(琴瑟之樂) 부부 사이가 좋은 것.

이구동성(異口同聲)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함.

금실지락(琴瑟之樂) 부부 사이의 화목한 즐거움.

혼융일체(渾融一體) 조그마한 차별이나 균열도 없이 한 몸이 됨.

상반대극(相反對極)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극. 남극과 북극 등.

빙탄지간(氷炭之間) 얼음과 숯처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사이. 대단히 사이가 나쁜 관계.

오월동주(吳越同舟)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마주치어 같은 장소·입장에 놓이게 됨.

(22) 선정(善政) · 학정(虐政)

경천위지(經天緯地) 온 천하의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다스림.

경천근민(敬天勤民) 하느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함.

선우후락(先憂後樂)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 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 함.

강기숙정(綱紀肅正) 법강(法綱)과 풍기(風紀)를 바로잡음. 나라를 다스리는 규율을 바르게 함.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청구하여, 백성들을 못 살게 들볶음.

도탄지고(塗炭之苦) 진흙탕에 빠지거나 숯불 속에 든 것 같은 고생이란 뜻으로, 백성들이 매우 고생함을 이르는 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

탐관오리(貪官汚吏) 탐욕이 많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23) 혼란(混亂) · 혼돈(混沌) · 질서(秩序)

- 평지풍파(平地風波) 평온한 자리에서 뜻밖의 분쟁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
 산란무통(散亂無統) 흩어지고 어지러워 통일이 없음.
 지리멸렬(支離滅裂) 갈가리 찢기고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됨.
 옥석혼효(玉石混淆) 구슬과 돌이 섞여 있다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
 사산분주(四散奔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남.
 풍비박산(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사분오열(四分五裂) 여러 갈래로 찢어지거나 흩어짐.
 일사불란(一絲不亂) 질서 정연하여 조금도 어지러운 데가 없음.

(24) 출중(出衆) · 용렬(庸劣)

- 제세지재(濟世之才) 세상을 구제할 만한 뛰어난 재주와 역량. 또는, 그러한 사람.
 개세지재(蓋世之才)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백전노장(百戰老將) 여러 차례 큰 싸움을 치른 늙은 장군. 세상일에 경험이 많아 당해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
 칠종칠금(七終七擒) 적병을 일곱 번 사로잡고 또 이를 일곱 번 놓아 준다는 뜻으로, 전략에 뛰어난 것을 이르는 말.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 학이란 뜻.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기라성(綺羅星)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실력자들이 늘어선 것을 비유하는 말.
 기린아(麒麟兒) 재주와 지혜가 비상한 젊은이를 이르는 말.
 동량지재(棟梁之材) 한 집안이나 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훌륭한 인재.
 촌철살인(寸鐵殺人) 짧은 말로 어떤 일의 급소를 찔러 사람을 크게 감동시킴.
 철중쟁쟁(鐵中錚錚)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
 옥골선풍(玉骨仙風) 뛰어난 풍채와 골격.
 재자가인(才子佳人) 재주가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
 무불통지(無不通知) 무슨 일이든지 다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
 출장입상(出將入相) 나서면 장수요 들면 재상이란 뜻으로, 문무가 다 갖추어진 사람.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 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이르는 말.

유방백세(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가동주졸(街童走卒) 길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들. 상식 없는 사람들.
 안고수비(眼高手卑) 눈은 높으나 재주가 없어 따르지 못함.
 무위도식(無爲徒食)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
 유취만년(遺臭萬年) 더러운 이름을 만대에까지 남김.

(25) 대책(對策) · 호책(好策) · 악책(惡策) · 무책(無策)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함.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음.
 정경대원(正經大原) 올바른 길과 정대(正大)한 원칙.
 이열치열(以熱治熱) 열로써 열을 다스림.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함을 이르는 말.
 발본색원(拔本塞源) 폐단이 되는 근원을 아주 뽑아 버림.
 읍참마속(泣斬馬謖) 촉한의 제갈량이 군령을 어긴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베었다는 고사에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그에 알맞게 그 자리에서 처리함.
 개선광정(改善匡正) 좋도록 고치고 바로잡음.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히 살 때 닥쳐올 위태로움을 생각함.
 적재적소(適材適所)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씀.
 고식지계(姑息之計)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고육지계(苦肉之計)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
 인순고식(因循姑息) 낡은 습관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취함.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
 격화소양(隔靴搔痒) 신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음. 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함.
 궁여지책(窮餘之策) 궁박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피.
 미봉책(彌縫策)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꾸며 대는 계책.
 속수무책(束手無策)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을 묶은 듯이 꼼짝 못함.
 호구지책(糊口之策)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책.
 구복지계(口腹之計) 식생활을 이어나갈 방법.

(26) 은(恩) · 원(怨)

-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뜻하는 말.
 각골난망(刻骨難忘) 은덕을 입은 고마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망극지은(罔極之恩) 다함이 없는 임금이나 부모의 큰 은혜.
 백골난망(白骨難忘) 백골이 된 후에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하는 말.
 수원수구(誰怨誰咎)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
 철천지원(徹天之冤) 그지없는 원한.
 불구대천(不具戴天)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한다는 뜻.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비유하는 말.

(27) 변화(變化) · 무상(無常) · 불변(不變) · 항상(恒常)

-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의 비유.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의 일이 덧없이 바뀔의 비유.
 조변석개(朝變夕改) 변덕스럽게 자꾸 고침을 일컬음.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옴.
 전화위복(轉禍爲福) 언짢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법령을 만들고 저녁에 그것을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이리저리 고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용두사미(龍頭蛇尾)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시작이 좋고 나중은 나빠짐의 비유.
 개과천선(改過遷善) 허물을 고치어 착하게 됨.
 영고성쇠(榮枯盛衰) 사람의 일생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뜻.
 격세지감(隔世之感) 그리 오래지 아니한 동안에 아주 바뀌어서 딴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
 금석지감(今昔之感) 지금을 옛적과 비교함에 변함이 심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느낌.
 환골탈태(換骨奪胎) 용모가 환하게 트이고 아름다워져 전혀 딴사람처럼 됨.
 주야장천(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향다반사(恒茶飯事)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듯, 일상 있는 일. 예사로운 일.
 요지부동(搖之不動) 흔들어도 꿈쩍 않음.
 만고상청(萬古常靑)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함없이 언제나 푸름.

구태의연(舊態依然) 예나 이제나 조금도 다름이 없음.
 시종일관(始終一貫)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시종여일(始終如一) 처음이나 나중에 한결같이 변함없음.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 곧 참된 정성.

(28) 생(生) · 장수(長壽) · 사(死) · 단명(短命)

산호만세(山呼萬歲)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부르던 만세.
 만수무강(萬壽無疆) 아무 탈 없이 오래오래 삶.
 수복강녕(壽福康寧) 오래 살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함.
 사중구활(死中求活) 죽을 고비에서 한 가닥 살길을 찾음.
 수절원사(守節冤死)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음.
 비명횡사(非命橫死) 제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고 뜻밖의 재난으로 죽음.
 미인박명(美人薄命) 미인은 흔히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다는 말.
 佳人薄命(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음.

(29) 빈곤(貧困) · 부귀(富貴)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지냄. 또는, 그 사람.
 단표누항(簞瓢陋巷) 초라한 음식과 누추한 마을. 소박한 시골 살림.
 폐포파립(弊袍破笠) 해진 옷과 부서진 갓. 곧, 너절하고 구차한 차림새.
 삼간초가(三間草家) 세 칸 되는 초가. 곧, 아주 작은 초가.
 삼순구식(三旬九食) 한 달에 아홉 끼를 먹을 정도로 매우 빈궁한 생활.
 남부여대(男負女戴)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짐을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함.
 단사표음(簞食瓢飮) 도시락밥과 표주박물의 뜻. 변변치 못한 음식. 청빈한 생활을 비유하는 말.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 맨주먹.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초근목피(草根木皮)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일컫는 말. 백성들이 재해를 만나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비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주지육림(酒池肉林) 술은 못과 같이 많고 걸어 놓은 고기는 숲과 같다는 뜻으로, 굉장하게 잘 차린 술잔치를 말함.
 상전옥답(上田沃畝) 좋은 밭과 기름진 논.
 남전북답(南田北畝) 소유한 논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이르는 말.

난의포식(暖衣飽食) 따뜻하게 입고 실컷 먹음. 곧, 잘 입고 잘 먹음.
 아방궁(阿房宮)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세운, 호화로운 궁전. 매우 크고 화려한 집의 비유.
 고대광실(高臺廣室) 굉장히 크고 좋은 집.
 구중궁궐(九重宮闕) 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이라는 뜻. 임금이 있는 대궐 안.
 왕후장상(王侯將相) 제왕·제후·장수·재상의 통칭. 곧, 백성의 지배층을 이르는 말.
 공경대부(公卿大夫) 삼공과 구경 등 벼슬이 높은 사람들.
 자수성가(自手成家)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살림을 이룩함.
 각박성가(刻薄成家) 인정이 없고 인색한 짓을 하여 부자가 됨.
 포식난의(飽食暖衣)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음. 곧, 생활에 넉넉함.

(30) 다대(多大) · 핵심(核心) · 사소(些少) · 무용(無用)

화룡점睛(畫龍點睛) 용을 다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사물의 가장 요긴한 곳 또는, 무슨 일을 함에 가장 요긴한 부분을 끝내어 완성 시킴의 비유.
 거두절미(去頭截尾) 머리와 꼬리를 잘라 버림. 앞뒤의 사실은 빼고 요점만 말함.
 단도직입(單刀直入) 요점이나 본문제의 중심을 곧바로 말함.
 약방감초(藥房甘草) 무슨 일이나 빠짐없이 끼임. 반드시 끼어야 할 사물.
 언중유골(言中有骨)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뼈 같은 속뜻이 있다는 말.
 비일비재(非一非再)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님.
 무량무변(無量無邊) 그지없이 크고 넓음. 헤아릴 수 없이 많음.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라는 뜻으로, 물건의 적음을 나타내는 말.
 빙산일각(冰山一角) 빙산의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사물의 극히 일부분.
 구우일모(九牛一毛) 여러 소 가운데 터럭 하나란 뜻으로, 아주 많은 물건 속에 섞여 있는 아주 작은 물건을 일컬음. 미미한 존재.
 창해일속(滄海一粟) 광대한 것 중의 아주 작은 하찮은 것을 이르는 말. 사람의 존재가 푸른 바다의 한 알의 좁쌀과 같이 미비하다는 것.
 미관말직(微官末職) 직위가 아주 낮은 벼슬. 그런 벼슬아치.
 수의야행(繡衣夜行) 영광스러운 일이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함.
 도로무익(徒勞無益) 애만 쓰고 이로움이 없음.
 경중미인(鏡中美人) 거울에 비친 미인이라는 뜻. 실속 없는 일.
 세답족백(洗踏足白)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꿈치가 희어진다는 뜻으로, 남을 위하여 한 일이 자기에게도 이득이 있음을 이르는 말. 일을 하고도 아무런 보수도 얻지 못하였을 때 쓰는 말.

사상누각(砂上樓閣)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

화중지병(畫中之餅) 그림의 떡. 곧 실속 없는 말에 비유하는 말.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

금의야행(錦衣夜行) 비단옷을 입고 밤에 감.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

언문풍월(諺文風月) 언문으로 짓는 풍월. 격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물.

무용지물(無用之物)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물건.

(31) 자의(自意) · 타의(他意)

종심소욕(從心所欲)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 '종심'(從心)은 70세의 이칭(異稱).

종횡무진(縱橫無盡) 자유 자재하여 거침없이 마음대로 하는 상태.

만사여의(萬事如意)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됨.

만사형통(萬事亨通) 모든 일이 거리낌 없이 잘 됨.

만사휴의(萬事休矣)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

(32) 근심 · 걱정 · 평온(平穩)

노심초사(勞心焦思) 마음으로 애를 써 속을 태움.

비육지탄(髀肉之嘆)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헛되이 날만 보냄을 탄식함을 이룸.

좌불안석(坐不安席) 불안 · 근심 등으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함.

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전전반측(輾轉反側)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전전불매(轉轉不寐)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물외한인(物外閑人) 번잡한 세상 물정을 벗어나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나 담담함.

무장무애(無障無碍)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는 평온한 상태.

만사태평(萬事太平) 모든 일에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함. 성질이 너그럽거나 어리석어 모든 일에 걱정 없음.

(33) 우정(友情)

단금지계(斷金之契) 합심하면 그 단단하기가 쇠를 자를 수 있을 만큼 굳은 우정이나 교제란 뜻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를 말함.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와 난초의 향기와 같이 벗 사이의 맑고도 높은 사귄.

- 기리단금(其利斷金) 둘이 합심하면 그 날카로움이 능히 쇠를 자를 수 있다는 뜻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음.
- 죽마고우(竹馬故友)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사귀는 벗.
- 수어지교(水魚之交) 고기와 물과의 사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친분.
- 문경지교(勿頸之交)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마음을 변치 않고 사귀는 친한 사이.
-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귀는.
-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아의 사귀는 매우 친밀하였다는 고사에서, 우정이 깊은 사귀는 이름.
- 금란지계(金蘭之契) 둘이 합심하면 그 단단하기가 능히 쇠를 자를 수 있고, 그 향기가 난의 향기와 같다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의를 이름. 금란계.
- 지기지우(知己之友) 서로 뜻이 통하는 친한 벗.
- 막역지우(莫逆之友) 거스르지 않는 친구란 뜻으로, 아주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를 일컫음.
- 금란지교(金蘭之交) 둘이 합심하면 그 단단하기가 능히 쇠를 자를 수 있고, 그 향기가 난의 향기와 같다는 뜻으로, 벗 사이의 깊은 우정을 말한다.
- 단금지교(斷金之交) 단단하기가 쇠를 자를 정도로 굳은 절친한 친구 사이를 말함.
- 호형호제(呼兄呼弟) 서로 형, 아우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
- 이인동심(二人同心) 절친한 친구 사이.
- 동심지언(同心之言) 마음을 같이하는 절친한 친구 사이.
-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보여주며 사귀는다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이르는 말.

(34) 기다림

- 학수고대(鶴首苦待) 학 머리처럼 목을 늘어뜨리고 애타게 기다림.
-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타우며 기다림의 비유.

(35) 자연(自然) · 자연애(自然愛)

- 고봉준령(高峰峻嶺) 높이 솟은 봉우리와 험준한 산마루.
- 만휘군상(萬彙群象) 세상 만물의 형상.
- 울울창창(鬱鬱蒼蒼) 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서 푸르게 우거진 모양.
- 녹양방초(綠楊芳草)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
- 만화방창(萬花方暢) 따뜻한 봄이 되어 온갖 생물이 나서 자람.
- 적막공산(寂寞空山) 적막한 깊은 산.

백화제방(白花齊傲) 여러 가지 수많은 꽃이 일제히 피. 학문·예술의 번창.
 사시장청(四時長靑) 소나무나 대나무처럼 식물의 잎이 일년 내내 푸름.
 만고강산(萬古江山) 오랜 세월을 통하여 변함이 없는 산천.
 기화요초(琪花瑤草) 옥같이 고운 꽃과 풀.
 삼수갑산(三水甲山) 산골 오지.
 산간오지(山間奧地) 깊은 산 속의 매우 구석진 곳.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만경창파(萬頃蒼波) 끝없이 너른 바다.
 잔월효성(殘月曉星) 새벽달과 새벽별.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번 꺾인 양의 창자란 뜻으로,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
 산간벽지(山間僻地) 아주 구석지고 후미진 산골.
 일망무제(一望無際)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산자수명(山紫水明) 산수의 경치가 썩 좋음.
 삼리만상(森羅萬象) 우주 사이에 벌여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산정무한(山情無限) 산에서 느끼는 정취가 한이 없음.
 장주지몽(莊周之夢) 자아와 외물은 본시 동일하다는 이치를 이르는 말.
 음풍농월(吟風弄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노래함. 풍류를 즐긴다는 뜻.
 주객일체(主客一體) 주체인 나와 객체인 자연이 한 덩어리가 됨.
 천석고황(泉石膏肓) 자연을 즐기는 버릇이 불치의 병처럼 되었다는 뜻으로, 그윽한 산수
 의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유유자적(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물심일여(物心一如) 물체와 마음이 구별 없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
 연하고질(煙霞痼疾)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고질과도 같은 성벽.
 풍월주인(風月主人) 청풍명월의 주인.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물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정신계가 한데 어울려 하나가 됨.
 요산요수(樂山樂水) 산수의 자연을 즐김.

(36) 도리(道理)

사군이충(事君以忠) 세속 오계의 하나.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함.
 사친이효(事親以孝) 세속 오계의 하나. 아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써 함.
 교우이신(交友以信) 세속 오계의 하나. 벗을 사귀기를 믿음으로써 함.
 임전무퇴(臨戰無退) 세속 오계의 하나. 전장에 임하여 물러서지 아니함. ~의 정신.
 살생유택(殺生有擇) 세속 오계의 하나. 생명을 죽일 때에는 가려서 해야 함.

- 군위신강(君爲臣綱)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부위부강(夫爲婦綱)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부위자강(父爲子綱)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부자유친(父子有親) 아버지와 아들은 친애(親愛)가 있어야 한다.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 붕우유신(朋友有信)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잘 따르는 것이 부부 사이의 도리라는 말.

(37) 속임수 · 간교(奸巧)

- 교언영색(巧言令色)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 곡학아세(曲學阿世)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
- 권모술수(權謀術數)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변통성 있게 둘러치는 모략이나 수단.
-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시키어 속임.
- 면종복배(面從腹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돌아서는 탄마음을 먹음.
- 동도서말(東途西抹) 이리저리 간신히 꾸며 대어 맞춤.
- 구미호(九尾狐) 꼬리가 아홉이나 된다는 오래 묵은 여우. 교활한 사람을 일컫는 말.
- 조삼모사(朝三暮四) 원숭이와 상수리에 관련된 고사에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어 농락함을 이르는 말.
- 염량세태(炎涼世態) 세력이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좃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형편.
- 감탄고토(甘香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 사리의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싫어함.
- 감언이설(甘言利說) 남의 비위에 맞도록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 사냥을 마치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 신의를 저버림의 비유.

(38) 분주(奔走)

- 주마간산(走馬看山)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침.
- 동분서주(東奔西走)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
- 문전성시(門前盛市) 찾아오는 손님으로 문 앞이 장터와 같이 복잡하다는 뜻. 방문객이 많음을 비유하는 말.

다사다망(多事多忙) 일이 많아 몹시 바쁨.

(39) 계절(季節)

양춘가절(陽春佳節) 따뜻하고 좋은 봄철.

사시가절(四時佳節) 네 철의 명절.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의 특성을 형용하는 말.

엄동설한(嚴冬雪寒) 눈이 오고 몹시 추운 겨울.

동빙한설(凍氷寒雪) 얼어붙은 얼음과 차가운 눈. 심한 추위.

(40) 경이(驚異) · 괴이(怪異)

망연자실(茫然自失) 멍하니 정신을 잃음.

팔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갑자기 는 것을 일컫는 말.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이르는 말.

혼비백산(魂飛魄散) 몹시 놀라 넋을 잃음.

대경실색(大驚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변함.

해괴망측(駭怪罔測) 헤아릴 수 없이 괴이함.

괴괴망측(怪怪罔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야릇함.

(41) 고통(苦痛)

기진맥진(氣盡脈盡) 기운과 의지력이 다하여 스스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됨.

만신창이(滿身瘡痍)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아비규환(阿鼻叫喚) 불교에서 말하는 팔대 지옥에서와 같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구원을 청하여 울부짖는 것을 말함.

(42) 모순(矛盾)

본말전도(本末顛倒) 일의 원줄기를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자가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주객전도(主客顛倒) 입장이 서로 뒤바뀜.

자가당착(自家撞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함.

이율배반(二律背反) 꼭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
또는 그 관계.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

(43) 겉과 속이 다름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라는 뜻. 말은 정답게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사이비(似而非)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나 가짜.

허례허식(虛禮虛飾) 예절·법식 등을 겉으로만 번드레하게 하는 일.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뿐이고 실상은 없음.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
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함. 동상각몽.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대가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

경이원지(敬而遠之)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함.

허장성세(虛張聲勢)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림.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맞아서 겉과 속이 다름.

내유외강(內柔外剛) 내실은 마음이 약한데도, 외부에는 강하게 나타남.

외유내강(外柔內剛)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거나 속은 단단하고 굳셈.

(44) 노력(努力)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쉼에서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

분골쇄신(粉骨碎身) 뼈는 가루가 되고 몸은 산산조각이 됨. 곧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함.

자강불식(自強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아니함.

불철주야(不撤晝夜) 어떤 일에 골몰하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또는, 그 모양.

절차탁마(切磋琢磨) 옥·돌·뼈·뿔 등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도덕·
기에 등을 열심히 닦음을 말함.

불면불휴(不眠不休)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함. 쉬지 않고 힘써 일하는 모양을 말함.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계속함.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
력함.

(45) 과부족(過不足)

교왕과직(矯枉過直) 소뿔을 바루다가 곧음에서 지나친다는 뜻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가 오히려 더 나쁘게 됨의 비유.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의 비유.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다 같이 좋지 않음.

(46) 미인(美人)

단순호치(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하얀 이란 뜻에서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르는 말.

경국지색(傾國之色)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만한 미인이라는 뜻.

(47) 위태(危殆)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란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

간두지세(竿頭之勢) 막대기 끝에 선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

명재경각(命在頃刻)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뜻. 거의 죽게 되어서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에 이름.

절체절명(絕體絕命) 어찌할 수 없이 절박한 경우. 절대절명(×)

간불용발(間不容髮) 틈이 터럭 하나 끼일 수 없다는 뜻으로, 사태가 매우 위급함 혹은 치밀하여 빈틈이 없음을 이르는 말.

누란지세(累卵之勢) 새알을 쌓아 올린 것처럼 몹시 위태로운 형세.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 몹시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빠짐. 간두지세(竿頭之勢).

누란지위(累卵之危) 새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아슬아슬한 위험.

위기일발(危機一髮) 거의 여유가 없는 위급한 순간.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이 타면 급히 끄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매우 다급한 일을 일컫는다.

여리박빙(如履薄冰)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하여 조심함을 이르는 말.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적군인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옴.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

진퇴유곡(進退維谷) 나아갈 길도 물러설 길도 없어 궁지에 몰림.

일촉즉발(一觸即發) 조금만 닿아도 곧 폭발할 것 같은 모양. 막 일이 일어날 듯하여 위험한 지경.

(48) 인과(因果)

인과응보(因果應報) 선과 악에 따라 반드시 업보가 있는 일.
 결자해지(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
 하여야 한다는 말.

(49) 향수(鄉愁) · 동경(憧憬)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저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무릉도원(武陵桃源) 동양의 상상적 이상향. 세상과 따로 떨어진 별천지를 비유하여 이르
 는 말.

(50) 시종(始終)

전무후무(前無後無)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전대미문(前代未聞)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일.
 전인미답(前人未踏) 이제까지 아무도 밟을 들여놓거나 도달한 사람이 없음. 이제까지 아
 무도 손을 대 본 일이 없음.
 자초지종(自初至終)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51) 번창(繁昌) · 번성(繁盛)

제제다사(濟濟多士) 인재가 많고 성한 것을 일컫는 말.
 우후죽순(雨後竹筍) 비온 뒤에 죽순이 쭈쭈 나오듯이, 어떠한 일이 한 때에 많이 일어남.
 일취월장(日就月將) 날로 달로 자라거나 발전함.

(52) 이칭(異稱) · 호칭(呼稱)

양상군자(梁上君子) 도둑을 점잖게 일컫는 말.
 백발홍안(白髮紅顏) 머리털은 세었으나 소년처럼 붉은 얼굴.
 합부인(閤夫人) 남의 아내를 공대하여 일컫는 말.
 금지옥엽(金枝玉葉) 임금의 일가자손을 소중히 여겨 일컫는 말.
 청상과부(靑孀寡婦) 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 상부.
 사랑양반(舍廊兩班) 남의 남편을 그의 부인 앞에서 일컫는 말.
 자린고비(玼吝考妣) 다라울 정도로 인색한 사람.
 시정지인(市井之人) 시중의 속인.

- 섬섬옥수(纖纖玉手)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르는 말.
 현모양처(賢母良妻) 어진 어머니이면서 또한 착한 아내.
 조강지처(糟糠之妻)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
 삼척동자(三尺童子) 키가 석자에 불과한 자그만 어린애. 곧 어린아이.
 부마도위(駙馬都尉) 고구려·고려·조선 시대에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 국서.
 백세지사(百世之師) 백대 후까지도 우러러 본 받을 만한 스승.
 반자지명(半子之名) 아들과 같다는 뜻으로, 사위를 일컫는 말.
 백년지객(百年之客) 한평생을 두고 늘 어려운 손님으로 맞아 준다는 뜻. 처가에서 사위를 이르는 말.
 빙자옥질(氷姿玉質)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아름다운 자질. 매화(梅花).
 금과옥조(金科玉條) 몹시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
 산중호걸(山中豪傑) 산속에 있는 호걸이라는 뜻. 호랑이를 일컫는 말.
 북창삼우(北窓三友) 거문고와 시와 술을 일컫음.
 문방사우(文房四友) 종이·붓·먹벼루의 네 가지 문방구. 문방사보.
 관도지기(貫道之器) 도를 담는 그릇이란 뜻으로, 문장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금오옥토(金烏玉兔) 해와 달을 달리 이르는 말.
 질풍노도(疾風怒濤) 몹시 빠른 바람과 성난 파도.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백면서생(白面書生) 글만 읽고 세상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
 종묘사직(宗廟社稷) 왕실과 나라를 함께 이르는 말.
 일엽편주(一葉片舟) 조그마한 조각배.
 구곡간장(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 굽이굽이 깊이 든 마음속.
 사서삼경(四書三經) 사서(논어, 맹자, 중용, 대학)와 삼경(시경, 서경, 주역).
 죽장망혜(竹杖芒鞋) 대지팡이와 짚신이란 뜻으로, 가장 간단한 보행이나 여행 차림을 이르는 말.
 신언서판(身言書判) 옛날에 인물을 고르는 표준으로 삼던 네 가지 조건. 곧, 신수·말씨·문필·판단력.

(53) 과장(誇張) · 강조(強調)

- 불원천리(不遠千里)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아니함.
 자자손손(子子孫孫) 여러 대의 자손. 대대손손.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말함.

방방곡곡(坊坊曲曲) 나라 안의 모든 곳.
 세세연년(歲歲年年) 매년을 강조하는 말.
 무궁무진(無窮無盡)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
 시시비비(是是非非) 옳고 그름을 가리어 밝힘.
 명명백백(明明白白) 아주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음.
 정정당당(正正堂堂) 공정하고 떳떳함.
 신신부탁(申申付託) 몇 번이고 거듭하여 간절히 하는 부탁. 신신당부.
 대대손손(代代孫孫)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대.
 전신만신(全身滿身) 온몸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삼삼오오(三三五五) 서너 사람 또는 너더댓 사람이 여기저기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는 모양.

(54) 속담(俗談)

우이독경(牛耳讀經)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이현령비현령(耳顯鈴顯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의 뜻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닌 둘러댔. 두 쪽에 관련된 것.
 동가홍상(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
 좌정관천(坐井觀天) 우물 안 개구리. 우물에 앉아 하늘 바라보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름.
 적진성산(積塵成山) 티끌 모아 태산.
 일어탁수(一魚濁水)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됨.
 정저지와(井底之蛙)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름.
 오비이락(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일이 공교롭게 같이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이관규천(以管窺天) 우물 안 개구리. 대롱을 통해 하늘을 봄.
 오비삼척(吾鼻三尺) 내 코가 석 자.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보아 줄 겨를이 없음.

(55) 경계(警戒) · 교훈(教訓)

설망어검(舌芒於劍) 혀는 칼보다 날카로움.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흔히 장애물[악마]이 들기 쉬움.
 병가상사(兵家常事)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니 낙심할 것 없다는 말.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도 낮은 데서부터. 모든 일은 차레를 밟아서 하여야 함. 직위

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

놀언민행(訥言敏行) 사람은 말하기는 쉬어도 행하기는 어려우므로, 군자는 언어는 둔하여도 행동은 민첩해야 함을 일컫는 말.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나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감.

욕속부달(欲速不達) 일을 급히 하고자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선유자익(善遊者溺)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익사하기도 쉽다는 뜻으로, 기능이 뛰어난 자는 그 기능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화를 받는다는 말.

타산지석(他山之石) 타산의 돌 자체로는 쓸모없으나 옥을 갈면 다른 돌에 간 것보다 옥이 빛난다는 사실에서,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말.

고장난명(孤掌難鳴) 한 쪽 손뼉은 울리지 못한다는 뜻.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 맞서는 이가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아니함.

대기만성(大器晚成)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식자우환(識字憂患) 학식이 도리어 근심을 이끌어 옴.

순풍이호(順風而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소리 지른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를 타서 일을 행하면 성사하기 쉬움을 말한다.

(56) 진미(珍味)

산해진미(山海珍味) 산과 바다의 산물을 다 갖추어 썩 잘 차린 진귀한 음식.

옥반가효(玉盤佳肴) 좋은 안주. 맛있는 요리.

용미봉탕(龍味鳳湯) 맛이 썩 좋은 음식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고량진미(膏粱珍味) 기름진 고기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珍羞盛饌) 잘 차린 좋은 음식.

(57) 학문(學文) · 교육(教育) · 학업(學業)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함. 곧, 늘 글을 읽음.

위편삼절(韋編三絕) 공자가 읽던 책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

독서삼매(讀書三昧) 잡념이 없이 오직 책을 읽는 데만 골몰한 경지.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과 눈빛으로 책을 읽어서 이룬 공.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여 얻은 보람.

주경야독(晝耕夜讀) 낮에는 밭 갈고 저녁에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공부함을 비유하는 말.

- 교학상장(敎學相長)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남에게서 배우거나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뜻.
- 한우충동(汗牛充棟)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들보에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책이 매우 많음을 이르는 말.
- 맹모단기(孟母斷機)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의 날실을 잘라 학문을 중도에 그만둠을 경계했다는 고사에서, 학문이나 일을 중간에 그만 두면 쓸모가 없음.
- 단기지계(斷機之戒)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틀의 날실을 자르면서 훈계했다는 고사에서, 학업을 중지해서는 안됨을 경계할 때 쓰는 말.
- 격물치지(格物致知) 주자학에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명확히 함.
- 독서망양(讀書亡羊) 독서에 정신이 쏠려 기르는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마음이 딴 데 쏠려 길을 잃는 것을 비유하는 말.
-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 안투지배(眼透紙背) 안광이 종이 뒷면까지 꿰뚫는다는 뜻으로, 책을 정독하여 그 이해가 깊고 날카로움을 이르는 말.
- 독서상우(讀書尙友) 책을 읽어서 옛날의 현인을 벗 삼는다는 말.
- 수신제가(修身齊家) 행실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음.
-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앎.
- 경당문노(耕當問奴) 농사일은 당연히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모르는 일은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말.
- 등화가친(燈火可親) 가을밤은 서늘하여 등불을 가까이 두고 글을 읽기에 좋다는 말.
- 동문수학(同門受學)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배움.
- 불치하문(不恥下問) 아랫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 망양지탄(亡羊之歎) 잃은 양을 여러 갈래의 길에서 찾지 못하듯,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못 미침을 탄식함.
- 다기망양(多岐亡羊)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이므로 진리를 찾기 어려움. 방침이 너무 많아 도리어 갈 바를 모름.
- 천학비재(淺學菲才) 학문이 얇고 재주가 없음. 자기 학식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구이지학(口耳之學) 들은 것을 새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에게 전하기만 할 뿐, 조금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 천박한 학문.

(58) 관계(關係)

순치지국(脣齒之國) 입술과 이의 관계와 같이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람이 망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음을 비유하는 말.

삼생연분(三生緣分)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아니한 깊은 연분. 곧, 부부간의 인연. 삼생지연.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백부모·숙부모·생질·형제·자매 등임.

사제삼세(師弟三世) 스승과 제자와의 인연은 전세·현세·내세에까지 계속된다는 말로, 그 관계가 매우 깊고 밀접하다는 뜻.

(59) 환경의 중요성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됨.

삼천지교(三遷之教)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일.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임.

굴화위지(橘化爲枳) 회남의 귤을 회북으로 옮기어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 환경에 따라 사물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말.

맹모삼천(孟母三遷) 맹모삼천지교의 준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세 번 집을 옮긴 일을 뜻하는 말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비유함.

(60) 중용(中庸) · 무관(無關)

불편부당(不偏不黨)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함. 무편무당.

사민평등(四民平等) 사·농·공·상의 봉건적 신분 제도를 없애고 평등하게 다루는 일.

묵묵부답(默默不答) 잠자코 대답이 없음.

우유부단(優柔不斷)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하지 못함.

수서양단(首鼠兩端) 쥐가 머리를 내밀고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는 뜻으로,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말함.

계륵(鷄肋) 취하지도 버리지도 못할 사물을 일컫는 말.

사시춘풍(四時春風) 누구에게나 늘 좋은 낫으로 대하며 무사태평한 사람을 이르는 말.

애매모호(曖昧模糊) 확실하지 못하고 희미함.

우왕좌왕(右往左往)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함.

부화뇌동(附和雷同)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한 모양. 흐지부지한 모양.

수수방관(袖手傍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음.

(61) 온갖 감정(感情)

- 오욕칠정(五欲七情) 인간의 온갖 욕망.
 사욕편정(邪慾偏情) 그릇된 온갖 욕망과 정욕.
 견물생심(見物生心) 실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
 희로애락(喜怒哀樂)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억하심정(抑何心情)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리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

(62) 상(賞) · 벌(罰)

- 논공행상(論功行賞) 세운 공을 논정하여 상을 줌.
 신상필벌(信賞必罰)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
 일벌백계(一罰百戒)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하는 일.
 봉고파직(封庫罷職) 옛날에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있는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봉해 잠그던 일.
 삭탈관직(削奪官職)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이름을 깎아 버림.

(63) 결백(潔白)

- 운상기품(雲上氣稟) 속됨을 벗어난 고상한 기질과 성품.
 순결무구(純潔無垢) 마음과 몸가짐이 깨끗하여 조금도 더러운 티가 없음.
 명경지수(明鏡止水) 명경대의 잔잔한 물이란 뜻으로, 아주 맑고 깨끗한 심경을 일컫는 말.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지냄.

(64) 고독(孤獨)

- 독수공방(獨守空房)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내는 일. 독숙공방.
 고침단금(孤枕單衾) 홀로 자는 여자의 이부자리.
 사고무친(四顧無親)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 과부 · 고아 및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인연을 끊고 나가지 않음.

(65) 충고(忠告)

- 충언역이(忠言逆耳)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림.
- 약석지언(藥石之言) 사람을 훈계하는 말을 일컫는다.
- 정문일침(頂門一鍼) 정수리에 침 하나를 찌는다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 또는 교훈.

(66) 보통사람들

- 갑남을녀(甲男乙女) 보통 사람들.
-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의 집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 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일컬음.
- 초동급부(樵童汲婦) 나무하는 아이와 빨래하는 아낙이란 뜻으로, 보통 사람들을 일컬음.
- 필부필부(匹夫匹婦) 평범한 남녀.
- 선남선녀(善男善女) 본래는 착한 사람들이란 의미이나 보통사람들의 의미로도 쓰임.
- 우부우부(愚夫愚婦) 본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의미이나 보통사람들의 의미로도 쓰임.

(67) 정책(政策) · 주의(主義) · 주장(主張)

- 교린정책(交隣政策)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정책. 조선 태조가 이웃인 여진과 일본 에 대하여 화친을 꾀한 외교 정책.
- 사대교린(事大交隣) 큰 나라는 받들어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화평하게 사귀.
- 위정척사(衛正斥邪) 조선 후기에, 정확한 주자학을 지키고 사학인 천주교를 물리치자던 주장.
- 사대주의(事大主義)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붙좃아 자기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
-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 세계 인류를 모두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박애주의.

(68) 권세(權勢)

- 좌지우지(左之右之)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룸.
-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이른다는 뜻으로,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짓의 비유.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는 짓.
- 생살여탈(生殺與奪)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음.

(69) 같은 마음

염화미소(拈華微笑) 석가가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을 때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달아 미소 지었다는 뜻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을 이르는 말.

심심상인(心心相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불립문자(不立文字)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염화시중(拈華示衆) 석가가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을 때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달아 미소 지었다는 뜻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을 이르는 말.

교외별전(敎外別傳) 선종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70) 소문(所聞) · 이야기

패관기서(稗官奇書)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워 모아 만든 서적.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풍설, 떠돌아다니는 말.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패관문학(稗官文學) 패관이 수집한 소문과 풍설에 창의와 윤색을 더하여 일종의 문학 형태를 갖추게 된 것.

가담항설(街談巷設)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

(71) 토의(討議) · 토론(討論) · 말

고담준론(高談峻論) 뜻이 높고 바르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 스스로 잘난 체하고 과장하여 떠벌리는 말.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 함.

횡설수설(橫說豎說) 조리가 없이 되는 대로 지껄임.

금석맹약(金石盟約) 쇠나 돌같이 굳게 맹세하여 맺은 조약.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을 못함을 이룸.

난상토의(爛商討議)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토의함.

어불성설(語不成說) 조리가 맞지 아니하여 도무지 말이 되지 아니함.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 한 마디로 다 말함.

언어도단(言語道斷) 말문이 막힌다는 뜻.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

중구난방(衆口難防) 여러 사람의 말을 막기 어려움.

일언지하(一言之下) 말 한 마디로 끊음.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함.

숙덕공론(淑德公論) 남 몰래 숙덕거리는 의론.

일언반구(一言半句) 극히 짧은 말의 비유.

갑론을박(甲論乙駁)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다언혹중(多言或中) 말이 많으면 혹 맞는 말이 있음.

(72) 기타(其他)

사통오달(四通五達)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지척지지(咫尺之地) 매우 가까운 곳, 또는 좁은 땅.

지호지간(指呼之間) 부르면 곧 대답할 만한 가까운 거리.

함흥차사(咸興差使) 함흥으로 보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심부름을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
거나 아무 소식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오리무중(五里霧中)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종적을 알 수 없음.

잠종비적(潛蹤秘跡) 종적을 아주 감춤.

철옹산성(鐵瓮山城) 방비나 단결이 튼튼한 상태.

색즉시공(色卽是空) 반야경에 있는 말로서, 유형의 만물인 색은 모두 인연이 소생으로서
그 본성은 공이라는 뜻.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깨나 잊지 못함.

인지상정(人之常情) 사람이면 보통 가질 수 있는 인정.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아주 재미가 있음.